안국약품, 임상진단 개발 전략적 제휴

안국약품은 8월과 10월에 미국의 임상진단 시스템 개발기업 Correlogic Systems와 투자 및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2월3일 발표했다.

계약은 지분 10% 이상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임상진단 칩 개발에 대한 국내 독점기술 파트너로서의 지위 확보 및 현재 개발하고 있는 암 진단용칩의 국내 우선 협상권을 포함하고 있다.

Correlogic의 투자는 국내에 취약한 바이오마커(Biomarker) 발굴 기술을 확보하므로써 다양한 샘플로부터 질병과 연관이 깊은 바이오마커를 찾아내 상업화시키는데 기여하고, 2008년 4월에 투자 완료한 DNA Link와 사업 제휴를 통해 질병 유발 DNA 서열을 효과적으로 밝혀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orrelogic은 환자의 혈액샘플을 통해 유전학적 패턴을 연구해 멀티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또는 다른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난소암 진단용 칩은 기존 난소암 칩의 높은 진단 오류를 극복해 90% 이상의 암 적중율을 나타내고 있어 2008년 12월 FDA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대장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진단용칩이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미국 진단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Quest 및 LabCorp과는 난소암 진단용 칩에 대한 공동 마케팅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FDA 승인 후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03>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